

우리의 반응

다시 한번 모였으면 합니다.
정체성(Identity) 코스의 막바지에 도달했는데요.

이 코스의 마무리를 위해
지난 몇 주간 배운 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들었던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이 코스를 시작했을 때,
두 큰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Identity)과 임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신 일을 더 알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생각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몇 가지를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신성하고 완벽한 가족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분께서 계시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역자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최고의 구조 작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전은,
2천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장 극적인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러 오셨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너무 의미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고통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단지 용서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구원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무료이지만,

용서를 받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야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읽은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Identity)과 임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을 믿으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으시기에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말하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뒤 편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쪽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

제가 주인인양 제 마음대로 살면서
많은 죄와 잘못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제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제가 받아야 할 자리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으신다면, 함께 조용히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 믿으시는 분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껏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

제가 주인인양 제 마음대로 살면서
많은 죄와 잘못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제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제가 받아야 할 자리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테이블 별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테이블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지도
알아보세요.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